

# 진상조사위 17인으로 구성... 최대 2년간 활동

## 세월호 조사 어떻게 하나

### 특검과 '투트랙'으로 진상 규명

### 본회의 의결 특검 2회 연장 가능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 내면서 법안 내용 중 핵심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와 특검추천위원회의 활동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진상조사위가 구성돼 참사의 근본 원인과 정부 당국의 구조 실패 등에 대한 조사가 착수한다.

진상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되며 새누리당이 5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명(각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은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6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의 권한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특별검사를 임명해 '투트랙'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여야는 앞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7명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여야 2명씩) 등으로 크게 구성되며, 여야는 지난달 19일 2차 합의에서 이 중 여당 몫의 2인을 추천할 때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진상조사위와 특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여야는 지난 합의에서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해 양측이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할 경우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검은 최장 180일(90일+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일 안산 세월호 유족 가족대책위 사무실을 방문하고 나서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정의화 '기다림의 정치' 국회 정상화 밀거름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기다림의 정치'가 국회의 파국을 막고 정상화로 이끄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됐으나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정 의장은 여야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지난달 16일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며 야당의 등원을 압박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본회의에 야당이 불참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자고 정 의장을 종용했다.

예정대로 본회의는 열렸지만 정 의장은 계류법안의 여당 단독처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등원을 약속하며 며칠간 본회의 연기를 요청하자 정 의장은 "야당의 진정성을 믿고 의사 일정을 변경하려 한다"며 "30일 본회의 재소집"을 선언하고 9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정의화는 지난 30일에도 여당 단독 본회의 강행에는 끝까지 신중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낸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이 불참하자 단독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개의 연기를 요청하자 정 의장은 여당 의원들에게 "여야가 합의정신을 살려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의장의 책무"라며 양해를 구하고 끝내 의사봉을 잡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野 '고강도 원내투쟁' 예고 '세월호참사' 국감쟁점 부상

국회 정상화로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원 명분으로 "원내투쟁으로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이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데 맞서 새누리당은 현재의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일단 세월호 참사는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당장, 야당은 운영위를 통해 청와대를 상대로 사고 발생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와 안전행정부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 과정에서 술한 허점을 드러낸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책임 추궁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계획도 야당의 공격 대상으로 거론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퇴진" "유임" 분분... 박지원 "이완구, 파트너로 계속 활동 했으면..."

### ■ 세월호법 일단락... 박영선 거취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1,2차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의 추진 불발에 이은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추진 파동 등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수습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한 후 그 결과에 관계없이 사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단 당내에서는 '명예로운 퇴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떠날 때는 영광의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게 원칙", "3차안이 아름답게 끝나면 스스로 결단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해온 당내 강경파 의원들도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스스로 내

려놓을 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박 원내대표가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원내 장악력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박 원내대표의 퇴진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거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협상 결과를 보고하며 "미흡해서 죄송하다"고 유감 표명만 했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선 박 원내대표가 이번 합의 성과를 지렛대로 재신임 등을 통해 정면돌파에 나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시각도 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범

후속절차가 남아있어 '연속성' 차원에서 당분간 직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여기에 비대위의 계파 불균형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연직 비대위원인 박 원내대표가 '하차'할 경우 세력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의원은 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 저에게 '10월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박영선 원내대표와) 같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박 원내대표의 유임에 힘을 실었다.

한편, 당헌에 따르면 원내대표 궐위시 후임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해 1개월 이내에 선출하고 그 사이에는 원내 수석부대표가 대행을 맡도록 돼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5·24대북제재 조치 해제"

#### 野 3당, 촉구 결의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 42명은 1일 북한의 전안협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5·24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5·24 조치를 철회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제반 사업, 남북 인적 왕래, 남북 경제협력, 남북 사회문화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정상화, 남북 국회회담 개최 협력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 추진 배경으로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개선하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남북교류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남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0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안주 이리함)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가발중의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아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